Strateg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권전략 박준우 junoopar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1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Issue Breaker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결과 주식에 긍정, 채권에 부정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 기업들의 중추적 역할 기대

한미동맹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양국이 전략적 동맹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단초이다. 핵심은 대규모 대미투자 유지와 관세율 인하 진전이다. 특히, 한미 동맹 7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핵잠수함 추진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핵 관련된 협력 강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 기업들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대미 투자 2,000억 달러의 전략 투자 분야로 확정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은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동인이 될 것이다. 오천피 시대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면 이들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의 이탈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한다. 10월 한미 협상에서 대미투자 금액은 3,500억 달러로 확정되었다. 연간 한도에서 기존 한국 측의 요구였던 150억 달러보다 큰 200억 달러로 합의된 점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지만, 필요할 때 쓰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이다. 확인된 관세 추가 진전이 안도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도체와 의약품도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의약품은 제네릭 등 일부 품목에서 무관세 적용이 포함됐다. 악재 해소이다.

채권시장에 단기 부정적 요인. 기반영 재료로써 금리 향방에는 제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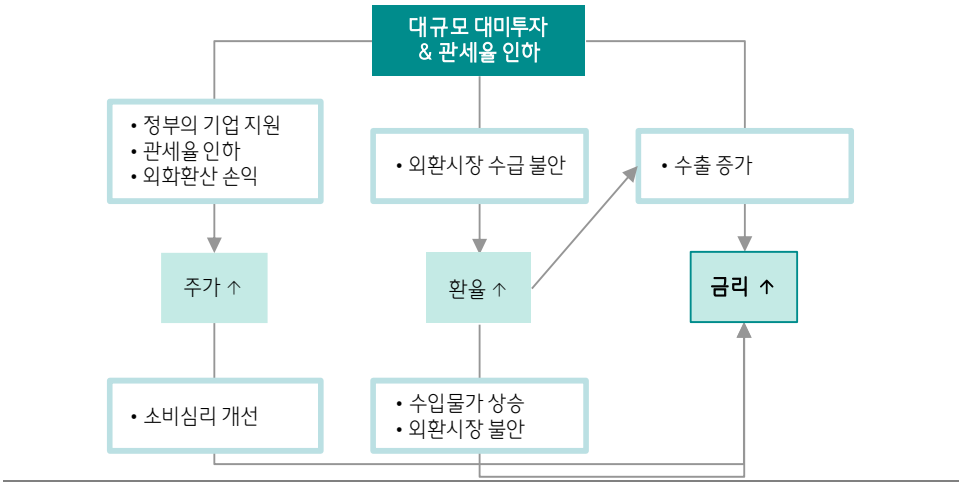
한편, 채권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대미투자 규모에 변함이 없어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된다. 한편 관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수출 전망은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도된 바와 큰 차이는 없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채권시장 입장에서 대미투자 규모가 클수록, 관세율이 낮을수록 악재다('10/29, 채권시장이 대미투자 협상에서 주목할 포인트'). 대미투자 리스크가 커지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과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관세율이 낮을수록 수출 전망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율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정된 부문을 주목한다. 최근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요인인 수출 전망에 긍정적이다. 한국 채권시장은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는 커지는 반면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연내 동결은 물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약화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50bp인 3.0%까지 상승한 이후 2.8~3.0% 박스권 등락을 예상한다.

도표 1.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정리

구분		내용
국가		한/미 정상회담
일시		2025년 10월 29일
장소		경주(APEC 정상회의)
주요 항목	대미투자	- 조선 1,500억 달러, 추가 전략투자 2,000억 달러 투자 - 전략투자(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관세조정	-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 중 높은 관세율 적용 - 한국산 제품 15% 관세율 적용 -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물에 대한 232조 관세율 15%로 인하 - 반도체에 부과하는 한국의 경쟁 대상 합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부여
	외환시장	-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 자금 조달 의무 없음 - 원화 변동 및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 요청 가능
	상업계약	- 한국 기업 대미 FDI 규모 1,500억 달러 - 103대(360억 달러) 항공기 구매, 보잉 737MAX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등
	상호무역	-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자동차 5만 대 수입 한도 폐지, 배출가스 인증 절차 간소화 -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농산물 전담 US Desk 설치 - 망 이용료·플랫폼 규제 차별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촉진 -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노동권 보호, 환경 기준 준수
	국방협력	-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 강화(핵 포함 전 범위 능력), 주한미군 지속 주둔, 핵협의그룹(NCG) 협력 강화 - 한국은 국방비 GDP 대비 3.5%까지 증대, 미 장비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	- 북한 완전한 비핵화, 대만 해협 양안 평화적 해결 및 현상 변경 반대
	해양 및 원자력	- 조선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협력,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 -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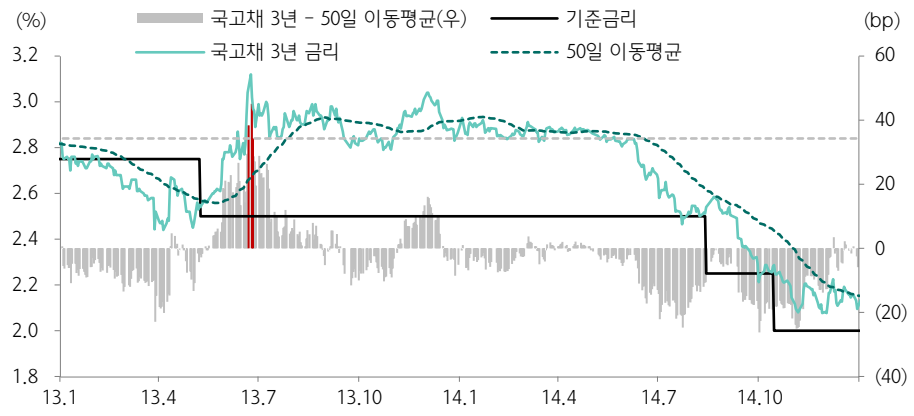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한미 협상이 채권시장 금리에 미치는 경로. 주식(기업)과 외환시장 통한 간접 효과가 큼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중 국고채 금리 급등한 사례는 2013년
: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50bp를 상회 후 진정. 이후 약 3~4개 분기 동안의 박스권 등락



주) 빨간 막대는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 급등(50일 이동평균 대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 자세한 내용은 11/12 자료 참고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